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집의 상징성과 계절의 시간성을  
통한 이상향의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 라 희

# 집의 상징성과 계절의 시간성을 통한 이상향의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deal Direction  
through Symbolism and Seasonal Time of House

- focusing on the artist's own works -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 라 희

# 집의 상징성과 계절의 시간성을 통한 이상향의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1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 라 희



## 박라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홍 수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유 섭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초록

<b>I. 서론</b>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구성 .....	3
<b>II. 작품구조에 관한 연구</b> .....	4
1. 집의 상징적 의미와 형상성 .....	4
2. 계절의 시간성과 배경으로서 역할 .....	10
<b>III. 이상향의 의미와 표현방법</b> .....	14
1. 다양한 이상향의 의미와 종류 .....	14
2. 이상향의 표현방법과 특성 .....	20
(1) 히에로니무스 보쉬 작품에 드러난 이상향 .....	20
(2) 안견 작품에 드러난 이상향 .....	24
(3) 그 외의 이상향을 드러난 다양한 작가의 표현 .....	26

<b>IV. 본인 작업으로의 연관성 작품 분석</b>	29
1. 작품의 형성 과정	29
2. 작품 분석	31
(1) 집을 생각하다	31
(2) 행복을 위한 꿈의 공간	33
(3) 형상과 상상이 만나는 세계	35
(4) 심상을 담은 색의 화면	45
<b>V. 결론</b>	47
<b>【참고문헌】</b>	49
<b>【참고도판목록】</b>	50
<b>【연구작품목록】</b>	51
<b>【표 목록】</b>	52
<b>【웹페이지】</b>	53

## 초록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경쟁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며, 설 새 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렇게 반복적인 복잡한 하루 24시간을 산다.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 속에 나만의 삶을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유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안식할 수 있는 이상향을 찾아 꿈꾸기도 한다. 안식처는 사람들의 여유와 안정을 통해 심신을 치유해 줌으로써 현실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본 연구자는 현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집’ 이라는 곳이다. 본 연구자의 집이라는 곳은 현실의 안식처이고 꿈꿀 수 있는 이상향을 연결해 준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지친 삶에서 한 줄기의 빛이자 심신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집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아닌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는 자신만의 공간이다. 계절의 변화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이며 시간의 흐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의 장소와 현실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의 흐름을 연결시켜 이상향인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상향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의 장소이다. 이곳들은 그들의 소망과 동경에서 나온 보고 싶은 곳이다. 이상향이라는 장소의 예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등과 같은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상 세계이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은 장소로 뜻한다. 본 연구자는 이상향을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풍경에 작은 집과 자연물로 이루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떠 있는 섬, 꽃밭, 나무, 구름, 물, 길, 사다리, 다리, 등으로 이루어진 풍경들은 여유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집들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색채로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집은 사방이 막힌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교류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실제로 이상적 세계를 마주 본 것 같은 행복감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를 통하여 집의 상징적 의미와 유토피아의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계절의 시간의 흐름을 나만의 이상 세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동경을 표출하여 만들어진 자신만의 유토피아 만들면서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었고 보는 이들도 공감을 얻고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하는 위로를 건네고 싶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deal Direction through Symbolism and Seasonal Time of House

- focusing on the artist's own works -

Park La Hee

Advisor: Prof. Cho, yoon sung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oday, we live in modern times where people 's lives are changing at a rapid pace, differently day by day. We endlessly create new ideas, meet different people to compare those ideas, and try to persuade others to rank competition, while throughout the whole time being conscientious of other people' s thoughts. Throughout the busy 24-hour day, these patterns are repeated every day.

In this way, actual time spent concentrating on one' s life in society is reduced progressively, and thus becomes more difficult to find time to relax, and relieve the excessive stresses, psychological pressures and anxieties. So, in order to escape from, I dream of finding an ideal that can be restore such deficiencies in our reality.

Houses are a sanctuary that helps people to alleviate such sufferings and return to their reality by healing their minds and bodies through leisure, while feeling secure within those confined

spaces.

The place of this researcher's home is an inner sanctuary that stabilizes the mind and body, fatigued from our daily grind that we call life, constantly repeating and fiercely competing with others.

The house is not just a mere building that functions as a simple residence, but rather a space of relaxa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y expressing the utopian ideal of the natural scenery that can be extended by expressing it with the house.

Utopia is a place of imagination that does not exist. However, the change of the seasons is a routine and cyclical time flow that can be felt. Therefore, in my art works, I tried to express my own utopia (Shangri la, paradise, inner haven) as an example of ideal sanctuary that is completely imaginary.

I, as a researcher express the ideal, as a world that cannot be seen, like in a fairytale and dreamy landscape with small houses and natural objects. Stability of the mind and body is expressed in various colors to match the house and the seasons accordingly, and floating and stable landscapes like islands, flower fields, trees, clouds, water, roads, ladders and bridges.

A house is a place where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confined limits provided within such space, it is not merely a closed space blocked by all four sides. Through these experiences, I was able to obtain a level of happiness that seeme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an ideal world and I made my work based on the symbolic meaning of home, various meanings of utopia, and the cyclical flow of the seasons in my own ideal world.

I would like to extend the comfort and healing that I was able to achieve through creation of such utopia to my readers by expressing

my desire to escape from reality through such havens and hope that those who see my work will be happy and comfortable.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자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유년 시절에 놀이를 통해 우리가 이불이나 담요를 이용하여 침대 혹은 탁자 밑, 아래에 자신이 만든 공간으로 동심을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날이 각박한 현실 속에 장시간 연장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매너리즘적 반복된 삶에 지쳐 피난처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현대 사람들은 개인적이며 특별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정서적 안정과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며 있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반복된 생활 양식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정과 여유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내고 싶었고 그러한 노력이 정서적이고 안전한 이상적인 특별한 힐링 공간을 찾아내었다.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곳이다. 본 연구자가 말하는 집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형태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이상향의 공간으로 연결되어있는 중요한 주제이자 요소이다. 집이라는 자신만의 공간과 이상적인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며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상향의 세계를 만들었다. 보통 이상향을 말하면 낙원,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유토피아 등과 같이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장소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많은 이상향의 대상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현실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다른 각도의 여유를 가지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는 마음은 자신의 삶이 그저 반복된 생활구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이며 나만의 이상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집의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생각과 이상향을 소망하게 된 마음을 바탕으로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상적 세계를 그림을 통하여 찾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현

실이라는 곳이 힘든 곳이라고만 보았으며 자신만의 이상적 세계는 그곳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점을 조금 더 넓혀 생각하여 바꾸게 되었다. 현실이 존재하여야만 이상적인 세계가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에게 집은 현실에도 있고 이상적 세계에서도 있으며 현실과 이상적 세계는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현실에서 문을 열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림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적 세계가 있다. 즉 문들은 외부와의 통로이자 또 다른 의미이며 소통의 장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현실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있지만 닿을 수도 없는 것들을 조합하여 이상적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도 자신만의 공간인 ‘집’이라는 곳과 이상향을 탐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상적 세계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현실사회에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에 의미를 둔다.

## 2.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집과 이상향이 현실에서의 필요성과 계절의 시간성을 통하여 작품을 표현하였다.

논문의 II장에서는 집의 사전적 뜻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왜 집이 필요한지 과거에는 어떤 형식으로 집을 지으며 살았는지 서술하였다. 그리고 지역과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집의 모양과 집단의 형성으로 바뀌면서 집이 발전하는 단계를 설명하였다. 오늘날의 집은 단지 몸을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으로서의 사람들에게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시하였다.

계절과 시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공존하는 중요한 바탕인 계절은 철마다 달라지는 자연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의(衣), 식(食), 주(宙) 변화를 나타내었다. 일 년을 시기별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였고, 서술하고 각각의 계절마다 갖는 의미와 작품 화면에 느껴지는 배경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III장에서는 동서를 불문하고 언급되는 다양한 이상향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그 장소에 관한 의미와 종류, 그 당시 이상향에 관한 작품을 표현한 작가와 그 외의 다양한 작가들인 20세기 작가들을 중에 그들만의 이상 세계를 표현한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 관해 서술하였다.

IV장에서 앞서 말한 내용을 통하여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였고 작품마다 표현하게 된 배경과 분석을 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이라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과 이상적인 세계를 연결 지어진 공간을 연구자의 해석을 기반으로 작품 배경과 과정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작품구조에 관한 연구

### 1. 집의 상징적 의미와 형상성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가족이 생활하는 터전, 동물이 보금자리를 친 곳<sup>1)</sup>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衣), 식(食), 주(宙)는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반이자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중에서도 집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처음으로 인류가 집을 짓기 시작했던 때를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집이 필요하게 된 최초의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동물의 침입과 대자연 속의 몸을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주고, 동물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 등 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동굴 속에서 살았지만, 채집을 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주의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채집을 위해 이동을 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그때마다 동굴을 찾았는데 뜻하지 않은 위험요소가 많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 동굴 속에 사는 동물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다.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몸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재료가 없었기에 처음 만들 때의 재료는 그 시대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시대의 집들은 이 토대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기후와 날씨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졌다. 구석기시대의 집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주형태는 유사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형태는 지역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 당시의 집들은 나무 말뚝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세우고 지붕을 짚이나 풀 엮음을 덮었다. (표-1)은 기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집의 모양을 정리하였다. 원뿔형의 집의 형태는 아시아 지역의 온대 기후의 원시 주거의 특징이라면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의 집의 형태는 아주 잘 휘어지는 나뭇가지를 모아 사용하여 바가지가 엮

1) ‘집’, 「동아 새 국어사전」, 두산동아, 1994, p.1966.

나라	고대 중국, 아시아 유래-북미 아메리카 인디언, 티피까지 영향	유럽, 아프리카
특징	나무 뼈대를 곧게 세워 만든 모양	잘 휘어진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지붕 꼭대기를 둥글게 만듦
모양	원뿔형	돔(dome)

(표-1) 전 세계의 구석기시대의 집들의 차이점

어진 모양처럼 지붕 꼭대기를 둥글게 돔(dome)의 형태로 만들었다. 인간은 그렇게 최초로 주거를 지었다. 처음에 집을 만들었을 때 단순하게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독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단 무리를 지어 지내는 생활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개인보다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였고 집의 형태들도 변화가 생겼다. 점점 한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들이 모여 도시를 형성하기 전에 집의 주거는 여섯 번의 단계를 거쳐 발달 되었다. 이러한 단계별 주거유형은 지리적 분포에 따라서 각 당시의 사회의 경제적 발달을 할 수 있는 특징적인 단계가 일치하였고 일반적인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즉, 단순사회들에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충분한 지역이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었고, 좀 더 복잡한 사회 속으로 들어간 경우 삶의 요건이 좀 더 유리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등장한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주거들(1, 2)’은 메마른 열대 사막과 습한 적도 밀림 또는 북극과 아북극 지방의 불모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이고 계절적인 주거들(3, 4)’은 아한대와 온대 지역 사이의 메마른 경계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 아한대와 온대 지역에서는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인 주거들(5, 6)’이 나타난다.<sup>2)</sup>(표-2)<sup>3)</sup>를 통하여 단계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농사법이 발달함의 따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단위는 부족에서 발전되

2) 노버트 쉐나우어, 「집 6,000 인류 주거의 역사」, 김연홍 역, 다우, 2004, pp.16-17.

3) ibid. , p.16.

1	일시 주거	단순한 수렵채집 경제에 생계를 의존하는 유랑 무리 사회들의 주거
2	간헐 주거	발달된 수렵채집 기술을 가진 유랑 무리사회의 주거 -목축으로 진행되는 중간 단계이자 초보적인 농경 단계를 말함
3	이동 주거	목축 경제를 영위하는 유목 부족사회 주거
4	계절 주거	목축과 부분적인 농업을 같이하는 반 유량식 생활방식을 지닌 부족사회의 주거
5	반영구 주거	생계형 농사를 짓는 정착 민속사회나 갱이농경민들의 주거
6	영구 주거	국가로서의 정치사회적 조직과 잉여 농산물을 보유한 정착 농경사회의 주거

(표-2)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거의 여섯 단계

어 혼합가족 또는 확대가족으로 변화하고 가족의 구성원은 다자녀 가족에서 핵가족화 지금의 현재에는 자식이 없는 경우의 일인 가족으로 변화되었다. 이때 주거의 크기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따라 바뀌고 경작의 방법도 개선되어 생존으로서의 거주지가 아닌 안락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대체되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오늘날 현대의 주거 형태로 점차 발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집의 기능도 점차 달라지게 되었다.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구조의 변화와 재료의 발전을 통해 단열의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오늘날에 완벽한 형태의 집들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점차 집은 단지 거주로서의 목적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의미가 구축되면서 또 다른 의미로 발전하였다.

집이라는 매개체를 통하면 거주인의 삶의 형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집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으며 각 개인의 공간이면서 또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쾌적하고 편안함을 주고 우리는 그 주위에서 또 그 안에서 인생을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우리는 외부에서부터 ‘집’ 까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돌아가고 싶은 갈망과 향수를 느끼게 된다. 이는 단지 친숙한 공간에 대한 그리움만은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안락함과 평온함이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한 이유는 확연히 다른 장소들과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의 금전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익숙한 공간인 동시에 그만큼의 불안감을 주는 장소인 회사의 사무적 공간, 사람들의 소비와 만남의 장이 되는 쇼핑몰,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이 그런 장소다. 그러한 곳을 통하여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 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더욱더 집은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다. 집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밥 짓는 냄새와 설거지하는 소리,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꾸밈없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가정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온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 여기가 지상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등 이러한 친숙하게 표현되어진 공간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고픈 귀가본성(歸家本性)으로 그리움에 사로잡힌다. 알랭 드 보통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의 집도 필요하다. 우리의 약한 면을 보상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감싸줄 피난처가 필요하다. 세상은 아주 많은 것이 우리의 신의와 대립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고, 중요하면서도 쉽게 사라지는 측면들이 살아 있도록 유지해줄 방이 필요하다.” 4) 고 말했다. 그러므로 집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이자 자기 자신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집을 어떤 재료와 형태로 지었는지 혹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집은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저장소와 같은 곳이며 집을 형

4) 알랭 드 보통, 「행복의 건축」, 정영목 역, 청미래, 2018, pp.117-118.

성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파사드(facade), 즉 건축물의 정면과 외관은 문자 그대로 얼굴(face)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조를 하나씩 분석해 보면 창문은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기에 눈으로 표출되고, 문은 우리가 허기져 배고플 때 먹듯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입으로 표현한 것이다.<sup>5)</sup> 또한 문을 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통로가 되므로 소통으로 볼 수 있다. 지붕은 우리가 그 공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머리를 상징한다. 사람에게 머리는 인체에 핵심이며 뇌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지붕은 집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인간이 살기 위해 보금자리이자 거주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상징으로서 집의 요소 중 최고점으로 자리 잡았다. 지붕은 집과 하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점일 뿐 아니라 욕망의 상징이다. 과거 인간은 하늘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어 하늘과 가까이 근접하려 했다. 집단사회의 우두머리는 자신이 하늘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여 피지배 계층보다 우월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보다 하늘과 가까워지게 높은 자리에 형성되어 있어야 했고 그 당시의 집은 하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권력계층이 나뉘어 명확한 구분이 지어졌다.

현대에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되면서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비버리힐즈 라는 곳은 부촌이며 영화배우들이나 대부호들의 고급주택인 건물들이 위치에 있으며 그곳의 이름으로 상징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경주 양동마을의 옛 건축물들을 보면 위계질서와 신분을 나누기 위해 勿(물)자형의 산형에 획으로 그어서 산등성이에는 양반이 거주하고 그사이 산골짜기 쪽은 노비들이 거주하였다. 과거와 다를 것 없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하늘을 숭배했던 대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덕 쪽에서 주거지를 옮김으로써 하늘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신분계층 차이를 주어서 확실하게 나타낸다. 집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에 그들이 머물렀던 집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공간은 신분을 나타내고 어떤 공간은 단지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안정으로서 말을 한다. 다양한 집의 변화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집이라는 공간이

5) 에드윈 헤스코트, 「집을 철학하다」, 박근재 역, 아날로그, 2015, pp.12-13.



우리가 사는 곳에 포함되어 변화와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

## 2. 계절의 시간성과 배경으로서 역할

우리의 사회발전과 인간의 진화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격변하면서 자연의 변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순리를 따라 천천히 변화가 되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면서 그와 동시에 자연의 변화로 없어진 것도 있다. 인간은 진화가 되기 전에 자연 속에서 머물며 살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만, 지금은 자연 속보단 인위적이며 단조로운 건물 속에 더 많이 지낸다. 그렇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자연의 풍경 변화는 어느 곳에서 감상하던지 다르지 않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절과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한해를 날씨에 따라 나눈 한철 6)을 계절이라고 하고 뜻으로 말하면 사시(四時), 사절(四節), 사시절(四時節), 춘하추동(春夏秋冬) 등 여러 가지로 뜻한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서 일 년을 나눈 것을 이십사절기라고도 한다. 해를 나눈다는 점은 시간을 나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날짜와 같은 시간에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고 하늘과 땅 사이의 흐름을 통하여 만들어진 시간들은 계절이 변화되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계절은 공생관계이자 중요한 존재이다.

예를 들어 태양의 황도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점을 기점으로 15° 간격으로 나누어 점을 찍으면 모두 24개 구간이 생기는데 이 구간을 7) 이십사절기라고 한다. 시작하는 첫날을 절기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하여서 각각의 입기일(立氣日)이라고 하고 크게 보면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라고 하여 계절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춘분, 하지, 추분, 동지는 계절이 가장 정점에 와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절기는 1년의 12달로 나누어 24개의 절기로 두었고 농사를 짓기 위함과 동시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6) “계절”, 두산동아, op. cit. , p.158.

7) 한호철, 「24절기 이야기」, 지식과 교양, 2016, p.19.

계절	절기		음력	양력	
봄	입춘(立春)	우수(雨水)	정월	2월 4·5일	2월 19·20일
	경칩(驚蟄)	춘분(春分)	이월	3월 5·6일	3월 21·22일
	청명(淸明)	곡우(穀雨)	삼월	4월 5·6일	4월 20·21일
여름	입하(立夏)	소만(小滿)	사월	5월 6·7일	5월 21·22일
	망종(芒種)	하지(夏至)	오월	6월 6·7일	6월 21·22일
	소서(小暑)	대서(大暑)	유월	7월 7·8일	5월 23·24일
가을	입추(立秋)	처서(處暑)	칠월	8월 8·9일	8월 23·24일
	백로(白露)	추분(秋分)	팔월	9월 8·9일	9월 23·24일
	한로(寒露)	상강(霜降)	구월	10월 8·9일	10월 23·24일
겨울	입동(立冬)	소설(小雪)	시월	11월 7·8일	11월 22·23일
	대설(大雪)	동지(冬至)	동지	12월 7·8일	12월 22·23일
	소한(小寒)	대한(大寒)	섣달	1월 6·7일	1월 20·21일

(표 3) 이십사절기

(표-3)<sup>8)</sup>은 예전에 중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절 변화의 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여 다를 점이 없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서 주는 것들은 우

8) *ibid.* , p.1665.

리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衣), 식(食), 주(宙)는 우리의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衣)는 옷을 뜻한다. 우리는 옷을 계절마다 바꿔입는다. 봄에는 얇으면서 춥지 않게 적당히 기장이 긴 옷을 입는다. 그러나 색깔은 봄에 맞게 화사한 색깔을 찾게 된다. 여름에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기장이 짧아지며 얇고 시원한 소재와 여름처럼 강렬한 진한 원색이나 바다처럼 시원한 느낌이 나는 색깔을 찾게 된다. 가을은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니 옷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길이가 길어지면서 색깔은 톤 다운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가을의 차분한 느낌을 나타낸다. 겨울에는 옷의 두께는 가을보다는 두꺼워지고 옷감의 소재는 따뜻한 소재를 찾게 된다. 색깔은 다른 색깔보다는 무채색의 색깔을 많이 찾는다.

식(食)은 음식을 뜻한다. 요즘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경제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제철 음식이라는 것을 찾는다. 봄에는 봄나물이라고 할 정도로 달래, 냉이, 두릅 등 나물 종류를 찾아 먹는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갈증을 달래줄 과일 종류로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등을 먹는다. 가을에는 말도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天高馬肥)라고 한다. 그만큼 수확이 많은 시기이고 일교차가 있어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고구마, 감자, 전어, 굴 등 몸에 좋은 음식을 들이 있다. 겨울에는 가을보다 점점 추워지면서 강해지는 만큼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데 삼치, 꼬막, 과메기 등이 있다.

주(宙)는 주거를 뜻한다. 지역과 기후와 환경에 따라 형태가 많이 바뀐다. 예를 들어 한대 지방의 이글루는 추운 곳에는 집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므로 눈과 얼음을 이용하여 집을 만들고 열대 지방의 수상가옥은 습기와 벌레를 피하기 위해 강가 근처에 집을 짓는다. 사막 지역에는 덥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간단하게 움막형태나 무거운 벽돌집을 짓는다.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모여 변화된 환경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생동감들은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표현방법은 말로써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봄은 산뜻하다, 포근하다, 따사롭다, 생명의 탄생 등 있고 여름은 강렬하다, 덥다, 싱그럽다, 찜뚱하다, 습하다 등 있다. 가을은 고독하다, 산들산들하다, 화려하다, 풍성

하다 등 있고 겨울은 시리다, 깨끗하다, 스산하다, 차갑다, 춥다 등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말들을 작품에 녹아들게 하고 싶었다. 감성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유기적인 공동체이자, 감정의 원천이 된다. 자연은 인간에게 다양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주고, 인간은 그런 자연을 바라보며 감성과 상상력을 통한 정신적인 향유를 한다. 자연은 신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예술적인 영감이 되며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숭고한 자연에 대한 경외와 무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본인으로 하여금 미적 근거로서 유토피아적 자연 세계를 추구하게 하였다.<sup>9)</sup> 그래서 작품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오는 자연의 변화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장면들의 느낌을 몽환적 분위기로 만들어 배경으로서 역할이 주제를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작용을 배경으로 표현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칙적인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중한 기억들을 통하여 배경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잊혀가고 있는 자연의 모습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억들을 공감하고, 가슴속에서 나오는 서정성을 나타내서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봄은 설산에 눈이 녹아 호수를 이루어 그 근처에는 새싹의 푸릇한 잔디, 색색의 꽃들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표현해 보았고,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과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표현하였으며, 가을은 커다란 나무에 노랗게 물든 나뭇잎과 깊고 푸른 호수를 표현하였으며 겨울은 눈 덮인 산 위에 얼음으로 만들어진 성을 만들었다.

본 연구자는 소재와 동시에 작품의 배경인 계절표현을 색감으로 표현하려 질감표현과 세밀화 위주의 묘사, 주제인 집과의 조화,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소재를 자연 속의 구름과 천상의 섬을 표현하였고, 따라서 점차 예전과 달라진 자연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그리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계절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9) 박지현, 「 '이상향의 풍경, 연작'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25.

### III. 이상향의 의미와 표현방법

#### 1. 다양한 이상향의 의미와 종류

대부분에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간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완주여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과를 만족하지 못해 욕구의 결핍이 생겨 좌절을 한다. 그러면서 환상적인 이상의 장소에 대하여 꿈꾸지만, 자신이 사는 현실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과거에는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설화를 통하여 그곳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였고 현대의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판타지적 요소가 담긴 게임, 영화, 소설 등을 보며 잠시나마 접하면서 내면의 결핍을 채워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상향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상으로 그리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상의 세계<sup>10)</sup>라고 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이상향에 좀 더 가까이 다가 가고 싶은 사람들의 갈망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상향적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자신이 사는 곳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다.

이상향에 대한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이다. 서양에서는 꿀과 포도주와 여러 종류의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누구든지 노동에서 자유로워 환희에 빠져서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인 코케인,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절제가 있는 공간인 아르카디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유래하며, 예수가 세상에 강림하여 왕국을 건설한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내려오기까지 천년동안 세상을 지배하여 불려진 이름인 천년왕국,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사회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제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룩하는 사회인 유토피아 등의 이상향이 있고 동양에서는 옛 설화 속에서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상향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서양의 이상향인 유토피아

10) “이상향”, 두산동아, op. cit. , p.1662.

는 영국사람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3]가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을 『유토피아Utopia』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이다. 그리스어에 연원을 둔 이 말에서 ‘U’는 ‘없다ou’의 의미와 ‘좋다eu’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글자이다. ‘topia’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이 둘을 합치면 세상에 ‘없는 곳’ 또는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유토피아는 세상에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세상과 다른 좋은 곳을 뜻하는 말이다.<sup>11)</sup>부정도 긍정도 아닌 최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인 세계라고 말하는데 초기 자본주의 현실사회와 대비되며 현실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책을 통하여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글로써 남겼고 더 나아가 영원을 담아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다.

서양에서는 세상에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말하여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것과 다르게 동양에서의 우리 선인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곳에서 이상향을 찾았다. 그들이 사는 공간이 바로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한층 더 적극적으로 궁지 어린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마을의 이름을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동천’이라고 부르는 행위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량과 애정, 자부심을 내보이는 표현이다. 동시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매일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잘 먹으면서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에서 행복을 찾은 곳이야말로 ‘이상향’이라고 인지를 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옛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이름의 이상향이 각종 글과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그만큼 그곳에 관한 관심과 동경이 높았다. 이러한 이상향에 관한 글과 이야기들은 단지 그 공간의 이름을 적어 남기려고만 쓴 것이 아니다. 그런 공간을 어쩌다 우연히 방문하였고 감탄하여서 남긴 기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 들었던 그 공간에 들어가 살고 싶어 몸부림치다가 결국 못 찾아낸 한탄이 담긴 일지이기도 하며, 꼭 언젠가는 찾아가기 위해 각오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비망록이기도 하다. 이상향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은 사실이 아닐 걸 알면서도 그곳을 동경하여 찾아 떠났던 이야기를 잘 보면 일정한 공식이 있다. 먼저 누군가에게 자신이 다녀 왔던 이상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 나서기로 각오를 하며 직접 그곳을 가기 위

11) 서신혜,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2010, p.51.

해 여행을 떠난다.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된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에게 안내를 받아 이상향에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두 가지의 상황 다 그 장소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험한 길을 한참이나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처음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힌 곳을 길을 내어 가게 되고 그곳을 발견하기 위해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힘들게 진입로를 뚫고 있는 과정에서 거의 뚫었을 때 이상향을 찾게 되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끝내 찾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전자인 상황에서 보면 이상향의 공간을 찾은 경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세계로 돌아온다. 이상향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깊은 인상을 남겨지므로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게 만든다. 여기서 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이상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경우와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아무리 찾고 헤매어도 그때 찾았던 그 길은 찾을 수 없어 돌아온 경우로 나뉜다. 물론 전자보단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그 이후에도 이상향을 찾는 시도는 계속해서 한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상향인 그 공간을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고 이곳저곳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다만 그곳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다. 옥야(沃野), 승지(勝地), 복지(福地), 동천(洞天), 낙토(樂土), 부산(富山), 선경(仙境) 등 다양하다.

옥야는 비옥한 땅을 나타내는 말이니 뛰어난 생산력을 강조한 용어이고, 복지는 아름다운 계곡이나 동굴 속 세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낙토는 낙원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힘든 것이 없는 즐거운 땅이라는 의미이며, 부산은 물자가 풍족하여 가난이 없다는 의미를, 선경은 신선이 살 만큼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sup>12)</sup> 그 외 승지는 굽주림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선택받은 땅이고, 동천은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조용한 땅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이상향이라는 곳을 얼마나 동경해왔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다.

---

12) *ibid.* , p.53.



그 외에도 (표 4)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서 이야기로 만들어져 이상향을 드러낸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인물	이상향	위치
이인로	청학동(靑鶴洞)	지리산
홍생	이화동(梨花洞)	금강산
유동지	단구(丹邱)	바다 어느 곳
오 안찰사	회룡굴(回龍窟)	속초 영랑호 근처

(표 4) 옛이야기 속에서 지역의 특성이 나타난 이상향

고려 시대 학자인 문인 이인로가 찾으려고 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청학이 그곳에 서식한다는 지리산 안의 ‘청학동(靑鶴洞)’, 홍생이 어느 승려의 도움으로 가보았으며 한자표기 그대로의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금강산의 ‘이화동(梨花洞)’ 이 있다. 이 밖에 유동지가 미역을 따러 갔다가 큰 풍량을 만나 배가 가라앉아 표류했다가 동해의 바다 어느 곳에서 발견했다는 섬 단구(丹邱), 강원도 관찰사인 오 안찰사가 설생과 함께 방문했다는 속초 영랑호 근처의 별세계 회룡굴(回龍窟) 등 이상적인 공간으로 말하며 살 만한 곳 들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셀 수가 없이 많다. 이러한 몇몇 얽힌 이야기를 아래의 내용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상권 中 청학동은 이인로는 늘 노인들에게 지리산 어느 곳에 속세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리산 속으로 몸을 구부리고 굽이굽이 수십 리를 걷다 보면 갑자기 넓은 평야가 나오는데, 그 땅은 매우 기름져서 수많은 곡식이 열린다고 했었다. 세상에 속세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푸른 학만이 살고 있다고 했다. 때마침 세상에 실증을 느끼던 이인로는 동무와 함께 그 ‘푸른 학이 살고 있다는 골짜기’ 즉 청학동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파수편破睡篇>의 이화동은 평소 신선 세계에 관심이 많던 홍생이라는 그런 세상을 왕래한다는 한 사람을 만나 간청한 끝에 동행한다. 가파지른 듯한 절벽의 산 둘레를 수없이 돌고 돌아 없어진 길을 날 듯이 건너기를 오랫동안 하여 한 별세계에 이르렀다. 수려한 경치가 있는 곳에 수십 채 집들이 나무 사이에 이어져 있는 평안한 곳이었다. 특히 골짜기 안에 배나무가 가득했고 집마다 배를 싣아놓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이화동이라 부른다. 홍생은 그곳에서 한 달 정도 극진히 대접을 받은 후 돌아왔다. 속세의 집을 정리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다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동야취집凍野彙輯> 7권의 이야기는 강원도 고성에 살던 유동지는 마을 사람들과 배를 타고 나갔다가 표류하여 ‘단구’ 라는 섬에 닿게 되었다. 드넓게 펼쳐진 금잔디로 끝을 알 수 없는 평야가 이어진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유동지는 그곳에서 며칠 묵다가 세상에 돌아와 보니 몇십 년이 지난 걸 보고 신선 세계에서 하루는 속세에서의 1년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다.

<청구야담靑邱野談> 4권의 회룡굴은 광해군 때 설생이 계축년에 인목대비 폐비 사건을 보고 세상을 등지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의 벗이었던 추탄이 몇 년 후에 안찰사가 되어 관동 지방 영랑호에 배를 띄워 놀다가 사라진 설생을 만나 그의 거처인 회룡굴을 방문하게 되었다. 험악한 산길과 절벽 사이를 따라 한참 들어가니 기름진 땅과 온갖 과실이 가득하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 산봉우리의 아름다움과 각종 돌의 기괴한 모양을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중에 추탄이 다시 설생을 찾았으나 회룡굴은 텅 비어있었고 설생의 종적은 알 수 없었다.<sup>13)</sup> 이러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은 하늘 세계인 이상향들은 동·서양에서 작품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양의 히에로니무스 부스의 <쾌락의 동산>, 그리고 동양의 안견의 <무릉도원>에서 나타난 이상적인 작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

13) *ibid.* , p.72.

## 2. 이상향의 표현방법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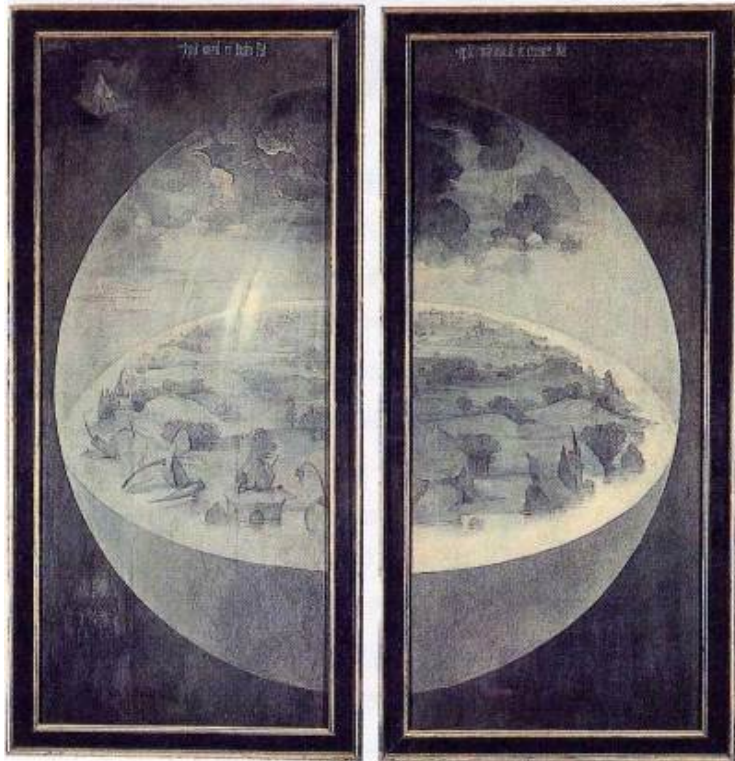
이상향과 집을 연구하면서 작품과 연관 지어 동·서양의 회화 작품에 나타난 이상향 작품의 특징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상향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는 각각의 다른 느낌의 두 작가들과 20세기 서양미술사의 흐름 중의 하나인 초현실주의 회화를 살펴보았다.

### (1) 히에로니무스 보스 작품에 드러난 이상향

카를 구스타프 융은 히에로니무스 보스를 보고 “기괴함의 거장, 무의식의 발견자”<sup>14)</sup>라고 말을 하였다.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이름은 네덜란드 남부 마을 스텔트토헤른보스에서 유래했다. 그는 그곳에서 출생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다른 특정한 화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사용했다. 생애에 그에 관한 자료와 작품이 알려진 사실은 극히 적었고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성향과 차이가 있어서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비밀에 싸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들은 20세기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종교를 상징하는 제단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환상의 세계 속에 동물과 사람이 합쳐진 반인반수(半人半獸)를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여진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가 이러한 작품을 만든 이유는 쾌락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하여 풍자적으로 제작하였을 것이다. 그의 작품 중 서양의 이상향을 표현한 대표 회화 작품 중의 하나인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은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가 1500~1505년경 정도 제작을 하였다. 그의 제단화 작품 중에 보존 상태가 좋고 현재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작품이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스토리 텔링이 되어서 작품에서 부분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도판-2)는 안쪽 면을 (도판-1)은 바깥쪽 면을 말한다. (도판-1)은 바깥쪽 날개로 되어있는 면으로 회색과 회녹색의 어두운

14) 스티븐 파딩 책임편집, 「위대한 화가 501」, 박미훈 역, 마로니에북스, 2009, p.62.

색채로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다. 상단 위에는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 (시편33장9절)<sup>15)</sup>라는 신의 성스러운 명령이 적혀져 있다. 왼편 상단 한쪽 구석에는 구름 틈으로 책을 들고 앉아 있는 창조주가 말씀을 전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작품의 중앙에서는 화면에 거의 차지하는 투명한 구 형체가 만들어져 그 중앙이 나누어지면서 빛과 어둠에서 나뉘어 있다. 빛



(도판-1)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쾌락의 동산>, 바깥쪽

날개, 1500-1505

으로 형성된 구체 안에서는 물과 물 사이를 창공 위와 아래로 나뉜다. 그렇게 나누어진 구체 안에 점차 솟아나는 대지 위로 비구름이 몰려들어 대지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나무 위에 싹이 돋아나 미묘하고 이상한 식물들이 자란다. 이는 삼일동안

15) 월터 S 기브슨, 「중세말의 환상 엮기 히에로니무스 보스」, 김숙 역, 시공아트, 2010, pp.88-92.

만들어진 대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안쪽 면의 (도판-2)의 작품은 그는 3개의 판넬 위에 그려진 그림을 서로 붙여서 만든 3연작화로 바깥 면의 세상의 창조 과정부터 안쪽 면은 왼쪽에서부터 에덴동산이 중앙에는 타락해 가는 인간세계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면의 맨 오른쪽 패널은 에덴동산을 표현했는데 대지와 물이 있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다. 괴이한 모습의 동식물도 있는 반면에 신화 속 동물과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가 만나는 장면들에서 이상적인 평화로운 천국의 모습처럼 표현하였다.



(도판-2)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쾌락의 동산>, 안쪽 면, 1500-1505

중앙 패널에는 지상의 모습으로 3연작화 중에 가장 색채가 화려하고 다양한 인간의 성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넓은 대자연의 배경 위로 다양한 모습의 젊은 남녀들이 나체로 부끄럼 없이 서로를 희롱하며 쾌락을 즐기고 커다란 과일 먹고 새들과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정신없이 노는 모습에서 점점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 패널의 맨 위는 푸른 빛의 산의 배경 위로 성적 상징을 나타내는 정교한 구조물들이 있고 중앙에 둥근 연못에는 여자들이 있으며 그 주위로 각종 동물

을 탄 남자들이 의식을 행하듯 에워싸고 있고 거대한 과일, 거품과 홍합 속의 남녀 등 성적인 느낌의 상징들이 있다. 감각적인 쾌락의 이미지들로 중앙 면을 에로틱하게 표현하였다. 마지막 왼쪽 패널은 지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두운 배경 위로 무섭게 생긴 반인반수(半人半獸)와 괴물들,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곳의 차가운 빙판들과 불이 뒤덮고 있다. 눈을 찌푸릴 만큼 끔찍한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오른쪽과 가운데 패널과 다르게 자연물은 완전히 배제되어있다. 작품 속의 고문에 모습들은 다양한데 거대한 귀에 식칼이 달려있고 그 귀 아래로 짓눌려지거나 하프에 매달려 죽는다. 의자에 앉아서 괴물의 형상을 한 사탄에게 통째로 먹혀 의자 아래로 더러운 배설물이 되어 나오는 벌을 받는 등 여러 고문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 (2) 안견 작품에 드러난 이상향



(도판-3) 안견(安堅),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 두루마리 비단에 담채, 38.7 X 106.5cm, 1447, 일본 덴리대 소장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라고 하면 본 적은 없어도 한 번쯤은 작품의 이름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지만 정작 그에 관한 자료는 애석하게도 거의 없다. 조선시대에 활동한 화가라는 것과 세종대왕의 셋째아들인 안평대군과 인연이 깊은 사이였고 그가 남긴 작품들과 그의 화풍은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산수화, 초상화, 동물화, 화조화, 풍경화 등 많은 분야에 능통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전해진다. 그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 중 진품이라고 보는 것은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한 작품뿐이다. 이 <몽유도원도>는 세종대왕과 소헌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8명의 왕자 중 셋째인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본 이야기로 제작된 그림이다. 시대적으로 혼란의 시기여서 안평대군은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수양대군과 대립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소망은 안견을 통하여 작품에 남겨졌다. 그래서 꿈속에서 본 장면을 <몽유도원기>를 통하여 잠시나마 복잡하고 공포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을 꿈에서 만나는 도피하고자 이상향을 기록하여 남겼을지도 모른다. <몽유도원도>는 일반적인 조선의 회화 작품과 구별되는 화풍과 양식상의 특징들이 보인다. 보통의 수권(두루마리) 그림의 경우는 회화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전개되는 것이 통례인 반면 <몽유도원도>는 그와 반대로 왼편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상단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렇게 왼편 하단에서 오른편 상단 방향의 대각선 시선 유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점진적인 시각적인 절정에 도달하도록 되어있다.<sup>16)</sup>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라는 뜻은 꿈속에서 여행한 복사꽃 마을이라는 뜻으로 가로 106.5 센치미터 세로 38.7 센치미터 이다. 비단 두루마리에 그려진 것으로 가로로 길게 그려진 이 그림은 왼편의 아래쪽에서부터 오른편의 위쪽의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꿈의 시작점인 왼편 아래 산 입구에서부터 낮은 산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구불구불한 험준한 산과 기괴한 바위들 그 틈새로 또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넓은 평지와 함께 향기로 가득한 복숭아나무가 가득한 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그곳은 쉽사리 어느 누가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듯 세상 어느 곳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단절되어진 완전히 고립된 공간임을 잘 나타낸다.

---

16) 김주희, 「동·서양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세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8.

### (3) 그 외의 이상향을 드러나는 다양한 작가의 표현

본디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으로 그리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상의 세계<sup>17)</sup>라는 뜻이다. 이러한 이상향은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현실과 비현실적인 상상 속 공간에서 표출하게 된다. 이처럼 소재들이 상상 속 공간에서 그려내는 자유로운 표현들은 20세기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의 작업 세계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서양미술사에 등장한 흐름 중의 하나인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와 현실을 뛰어넘어 세상을 그리는 예술 사조이다. 초현실 미술 작가들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 있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사물들을 괴기하게 표현하여 친숙한 배경에 배치하여 표현하고 그의 작품을 보면서 의문점을 느끼게 하여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게 실험적인 작품을 그린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예기치 못하는 장면에 들어가면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의미들을 보여주고 그 소재들의 고유주의 성질들이 사라져서 묘사되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대상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그린다. 그가 그려낸 그림 중 종절모를 쓰는 신사들의 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로 표현되어 진 장면이라든가 접시에 놓인 햄에 눈이 달려진 모습들은 그저 일상의 사물들을 모순되게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벼락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일상을 통하여 익숙해진 모습들을 비합리적인 맥락 속에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 속에 규칙을 접목시켜 불안정하게 배치되어 진 이러한 화면은 논리를 뛰어넘어서 현실에서의 새로운 시각들을 제공한다. 그의 대표 작품은 <골콩드>, <잘못된 거울> 등 있다.

17) ‘이상향’, 두산동아, op. cit., p.1662.



(도판-6)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골콩드>,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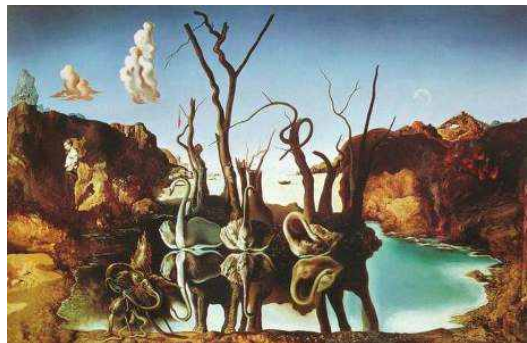


(도판-6)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잘못된  
거울>, 1935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표현방식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와는 또 다른 이미지이다. 무의식을 상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와 기호를 만들기보다는 사실적 기법으로 자신의 몽환 상태를 표현하려 노력했다. 그의 사생 능력은 아주 남달라서 거의 세밀화 기법에 대적할 정도지만 그려진 사물은 괴기하고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흥측하고 우스꽝스러운 즉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꿈속의 모습 속에 위치에 있다. 달리의 작품에서는 꿈속 세계에 대하여 묘사하거나 일상 속의 사물들을 왜곡하여 황혼의 메마른 풍경이나 환각적인 배경에 배치하여 일부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부조화 속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작품에 녹아들게 했다. 그의 대표 작품은 <기억의 지속>, <코끼리를 반사하는 백조> 등 있다.



(도판-7)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기억의 지속>,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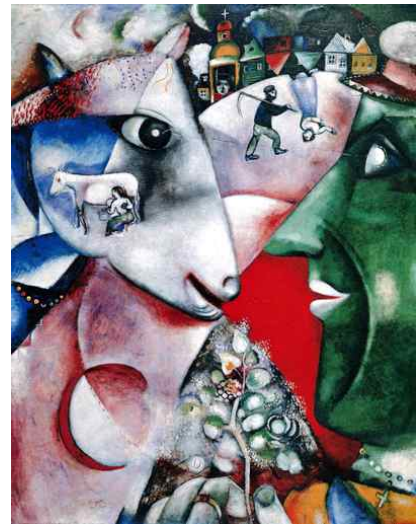
(도판-8)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코끼리를 반사하는 백조>, 1937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은 앞서 말한 두 작가와 달리 또 다른 그만의 독창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강렬한 색채와 새로운 공간개념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바탕으로 낭만적이고 자신만의 순수한 표현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환상적인 그림들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이 비이성적인 꿈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의 추억들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8)</sup> 샤갈의 그림에 모티브는 동물과 꽃, 지방마을의 풍속, 신부, 사랑하는 연인들을 주로 그렸으며 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몽환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추구했다. 그의 대표 작품은 <도시 위에서>, <마을과 나> 등 있다.



(도판-9)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도시 위에서>, 1887-1985



(도판-10)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의 마을>, 1911

앞서 말하는 작가들이 다루는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한 작품과 현실의 사물과 비현실적인 공간의 조화를 표현한 작품들은 본인의 작업의 이상향을 표현 작품과는 무관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들을 형식적인 부분을 분석하면서 본인의 작품들의 양식적 표현들을 정리해 보았다.

18)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 역, 예경, 2013, p.271.

## IV. 본인 작업으로의 연관성 및 작품 분석

### 1. 작품의 형성 과정

본 연구자의 작품은 어렸을 적의 기억에서 이불을 이용하여 집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았던 공간을 생각하였고 현실과 다른 공간을 만들고 싶은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나 또는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다.”<sup>19)</sup>고 말한다. 그가 말한 집에 관한 생각은 연구자의 작품세계에 반영되어준다. 안식처가 되어주는 집에서 만들어낸 상상들이 모여 만들어낸 공간을 캔버스에 담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번쯤 가고 싶은 이상적인 공간에 집을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가 그려낸 집은 작품에 보여지는 세밀한 표현들도 중요하지만 미니멀(minimal)하게 작게 그려진 집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하다. 이전에 그려낸 본인의 작품의 세계에서 말한 집들은 단지 건물로서 역할을 직접적이게 보여주었다면 지금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집들은 세밀하게 그려진 집은 연구자 본인이 말하는 내면의 안정을 준다.

작품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표현해 보았다. 첫 번째 주제인 집을 생각하다 는 연구자 자신이 집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작품 속의 건물들은 각각 이 형태도 다르고 사용되는 방법도 다르다. 어떤 건물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파는 가게로 표현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한 꿈의 공간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공간 속의 집을 넣어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작품을 보면서 상상으로나마 잠시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게 표현하였고 세 번째 형상과 상상이 만나는 세계는 섬이라는 것은 단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 있는 섬들

19)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선, 2003, p.95.

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형상과 상상을 연결 시켜 새로운 섬을 탄생시키고 계절의 변화가 표현되어 자연과 집들이 어울러지는 또 하나의 세상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상을 담은 색의 화면에서는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는 점은 본 연구자도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색감은 어떤 색으로 하며 구도와 배치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표출하여 관람자에게까지 전해져서 작품을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부분을 생각하며 그린다. 그러한 형식들 중 연구자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색(色)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의 주제들에서 구체적인 소재들에서 나아가 이상향이라는 공간을 표현한 연구자 본인의 작품에서 이미지화 하였다.

## 2. 작품 분석

### (1) 집을 생각하다



(연구 작품 1) View I~IV 23 x 18 cm pen on paper 2018

현대 사회의 도시 속에서 우리가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밖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자연물로 뿔뿔하게 채워져 있는 풍경을 본다. 단지 밖의 풍경 때문에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밖의 창을 통하여 풍경을 감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스스로에 대하여 상념에 잠기기도 하며 잠시 서서 멍하니 바라보기도 한다. 또 한 창을 통하여 계절이 바뀌며 풍경이 변하고 문을 열면 바깥세상과 소통한다. 창문 너머로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욕구와 함께 시선을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풍경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바뀌는 순간의 장면에 대한 기억들은 변하지 않는다. (연구 작품 1)에서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 잠시나마 여유로운 심을 주고 싶어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2) stay II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3) stay I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4) simple store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5) Red house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 (2) 행복을 위한 꿈의 공간



(연구 작품 6) 낮과 같이 밝은 달 60.6 x 72.7 cm acrylic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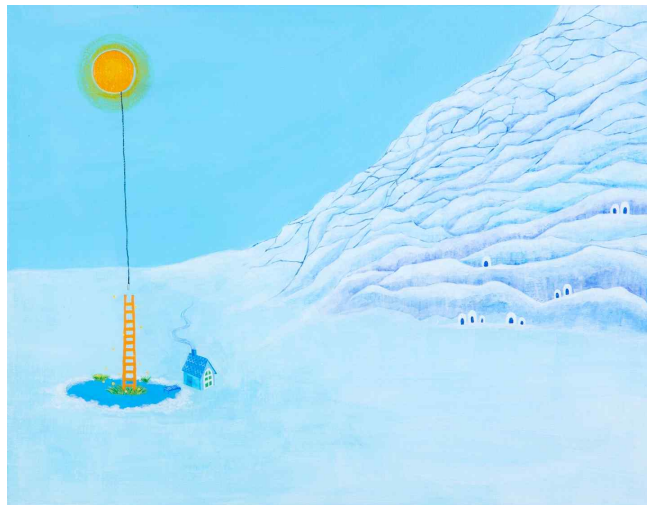
(연구 작품 6)이 표현한 나만의 공간은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개성이자 행복을 표현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표현하고 싶은 꿈속의 배경은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만들었다. 사막 위로 곡선형의 물길과 북극 동물인 펭귄을 넣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넣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펭귄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 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떠난다.

작품에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소재들인 막대 사탕, 선인장, 텐트, 모닥불, 튜브, 이글루 등 여러 가지 소재들은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7) 어디 어디 비추나 37.9 x 45.5 cm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7)은 사막을 밝히려는 램프의 빛들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앞을 비춰주려고 별이 되기 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8) 우리 집에 비추지 37.9 x 45.5 cm acrylic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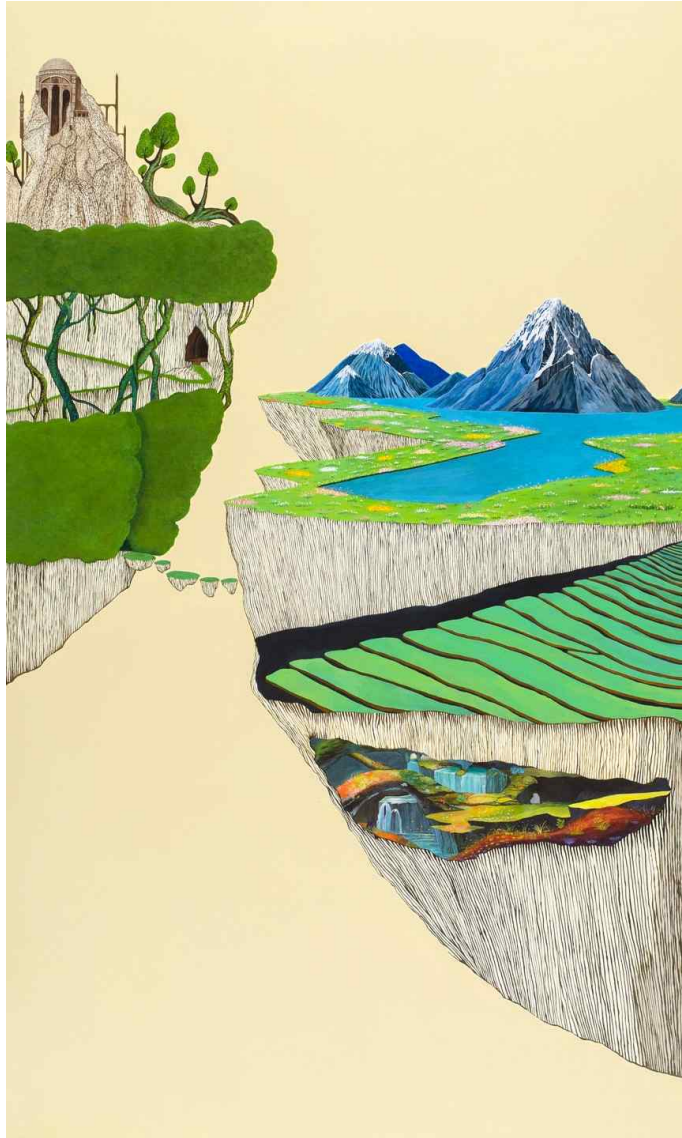
(연구 작품 8)는 새하얀 설원의 풍경 속에 태양을 전등 삼아 놓아진 집과 설산 위로 놓아진 집들이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을 표현해 보았다.

### (3) 형상과 상상이 만나는 세계



(연구 작품 9) cozy island I~IV 연작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9)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한 4연작화 이다. 각각의 떠 있는 섬 자체는 빈 공간이 없이 계절에 맞게 다양한 색채로 변화를 주었고 빈 여백에 떠 있는 섬들을 표현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게 단색으로 표현하여 공간구성을 하였다. 이상세계로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모든 섬은 길이나 다리,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계절로서의 연결고리를 표현하고 하고 싶었다.



(연구 작품 10) cozy island 162.2 x 97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0)에서는 봄의 섬을 표현하였다. 떠 있는 두 개의 섬 중 오른쪽 섬은 절벽에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진 집을 표현하였고 왼쪽의 섬은 겨울이 거의 끝날쯤 설산에 눈이 녹아 호수를 이루고 섬 안에는 다랭이 논밭과 섬 안의 풍경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몽환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11) 162.2 x 50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1)에서는 여름의 섬을 표현하였다. 강렬한 태양과 봄의 섬이 설산에 눈이 녹아 고여진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절벽 밑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이다. 섬 안의 흘러내리는 물 옆으로 조그마한 정원들과 가을의 섬으로 연결되어지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다음의 행선지로 떠날 수 있게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12) cozy island 162.2 x 97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2)에서는 가을의 섬을 표현하였다. 앞과 뒤의 섬의 크기를 두어 원근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고 풍요로운 가을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색감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앞의 섬은 큰 노란 나무와 깊고 푸른 호수를 넣었고 뒤에 있는 섬에는 파스텔톤의 핑크와 보라의 색을 적절히 섞어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13) cozy island 162.2 x 97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3)에서는 겨울의 섬을 표현하였다. 왼쪽 상단의 가을의 섬에서 겨울의 섬으로 연결되어진 사다리의 색감을 그라데이션을 주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계절 변화를 표현하였고 오른쪽 하단의 섬들은 눈 덮인 설산들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섬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14) 낙원-티 Dorado(2) 162.2 x 130 acrylic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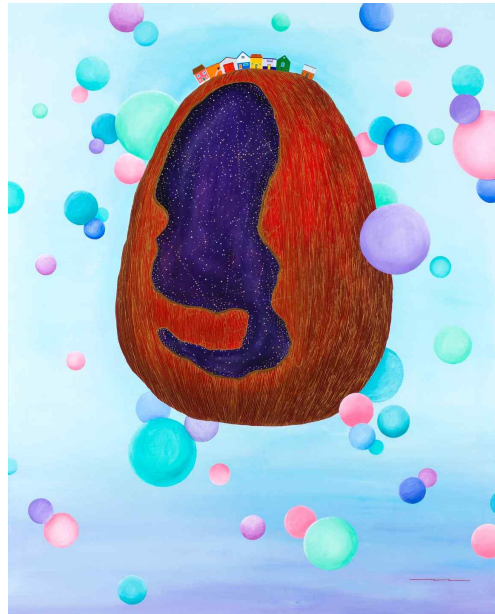
(연구 작품 14) 는 자신만의 엘도라도를 표현하였다. 또 다른 이상향인 엘도라도는 고대 유적 중 하나이다.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어떻게 그곳이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엘도라도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금가루를 칠한 사람’ 을 뜻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잘하는 ‘황금의 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연구 작품 15) 감성스태이(1)

162.2 x 130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6) 감성스태이(2)

162.2 x 130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5)와 (연구 작품 16)은 연작이다. 작품의 명제 그대로 감성과 동심을 자극하여 그 감정들을 작품에 녹아들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작품에 떠있는 섬에形形色색의 랜턴, 전구, 공, 우주, 집을 그렸다. 그리고 집에 실제로 우주가 담기진 않았지만 집과 연결된 요람처럼, 우주를 담고 있는 떠있는 섬 위로 놓여진 작은 집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조그마한 집에 우주가 담긴다.’라는 표현된 말을 작품을 통하여 형상화하였다.



(연구 작품 17) Fantaisie island 90 x 72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7)은 연구자 자신만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상상하면서 작품에 표현하였다.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떠다니는 섬에 폭포와 핑크빛의 신비감이 느껴지는 나무와 그곳에 집을 지어 신선이 사는 듯한 하나의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연구 작품 18) Hygge island 116.8 x 91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8)은 밤하늘을 담고 있는 떠있는 섬 위에 캠핑트레일러가 놓여있고 그 왼쪽 상단에는 핑크톤 색감의 건물과 오른쪽 상단에는 즐겁게 놀 수 있는 수영장을 표현하여 열기구처럼 떠다니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지 같은 이상적 공간을 힐링 공간을 표현하였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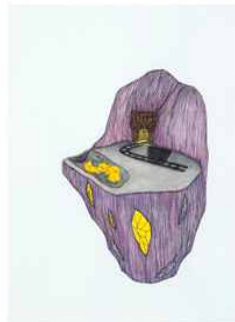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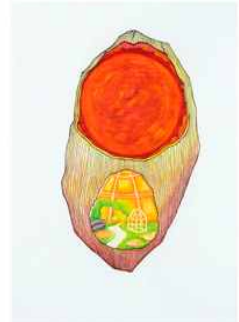
④



⑤



⑥



⑦

(연구 작품 19)

- ① Mon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② Tues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③ Wednes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④ Thurs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⑤ Fri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⑥ Satur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⑦ Sun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연구 작품 19)는 연작으로 요일을 표현하였다. 일주일에 월(月)요일은 달, 화(火)요일은 불, 수(水)요일은 물, 목(木)요일은 나무, 금(金)요일은 쇠, 토(土)요일은 땅, 일(日)요일은 해까지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 (4) 심상을 담은 색의 화면

우리가 작품을 그릴 때 여러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린다. 예를 들어 색채는 어떤 색감으로 할 것인지, 구도와 배치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작품 속에 담긴 자신만의 생각을 관람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화폭에 담는다. 그중 색채는 연구자가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이다. 색채는 여러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정서적, 심리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감정적 부분에 색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즉, 색이 인간의 내부적인 감정을 위로하는 치유 약으로서 작용하는 셈이다.<sup>20)</sup> 그래서 연구자에게 색(色)은 안정을 위한 자신만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색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느 색 하나 굵지 않은 색은 없으며 그 고유의 것들이 서로 어울렸을 때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색은 기분이 나쁘다가도 좋아하는 색을 보면 위안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싫어하는 색을 보면 언짢은 기분이 든다. 일반적으로 화사하고 조화로우며 밝은 색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칙칙하고 어두우며 가라앉은 색채는 우울하고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sup>21)</sup>

작품 속의 색들은 연구자에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 진다. 첫째로 고유의 색이 주는 이미지는 정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색을 통하여 작품을 보는 사람들과의 감정의 교류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강은 마음과 몸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를 생성하며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불만이 있을 때 찾는 색이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을 땐 찾으려 안되는 색이다. 주황은 노랑과 빨강의 중간색으로 안정감을 주기에 집에 주로 주방에서 쓰인다. 식욕을 돋으며 편안함을 주는 색이다. 노랑은 자신이 다른 사

20) 이승은, 「추상적 형태를 통한 현대인의 감정과 색채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7, p.16,

21) 김선현, 「컬러가 내뿜는 바꾼다」, 빅서스books, 2016, p.37.

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색이다.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  
 이들이 노랑을 많이 선호하지만 자기 자신의 유아기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  
 을 때 피하고 싶은 색이다. 초록은 한(寒)색인 파랑과 난(暖)색인 노랑이 섞여진  
 색이고 내적인 균형과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찾는 색이다. 눈에 피로감을 덜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칠판 보드를 초록색으로 사용한다. 파랑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  
 분하게 자신에게 몰두할 때 사용하거나 이별을 겪어 공허한 상태에 찾는 색이기도  
 하다. 그러나 톤에 따라 심리상태는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보라는 빨강과 파랑의  
 각기 다른 보색으로 분명한 색감들이 섞였으니 양면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색이  
 다. 또한 심신이 피곤해지면 잠재의식 속에서 찾게 되는 치유의 색이기도 하다.

두 번째 파스텔톤은 연구자의 심리적인 마음을 잘 나타내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이다. 파스텔톤은 원색에 흰색을 섞어 채도를 낮춘, 밝고 화사한 색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어 파스텔로(pastello)에서 유래한 말로 부드러운 중간색을 말하며,  
 '밝은(light)·아주 연한(very pale)' 톤을 가진 색상을 뜻한다. 원색에 흰색을 더  
 하면 채도가 낮아지면서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파스텔톤으로 바뀐다. 파랑  
 색은 더욱 밝고 연한 파랑색이 되고, 핑크색은 더욱 밝고 연한 핑크색이 된다. 파  
 스텔톤이 가미되면 색의 이름도 파스텔 블루·파스텔 핑크로 부른다.<sup>22)</sup>

연구자 작품에 사용하는 색감은 대부분은 원색에 흰색을 섞은 파스텔 톤으로 작업  
 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파스텔 톤은 온화한 색감에서 나오는 은은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들에서 심신의 안정을 받았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연구자와 같이 작품을 보고 있는 동안만이라고 탈출구 같은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  
 다는 마음에서 다른 고유의 원색들 보다 더욱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듯 각기 다른  
 색들은 색상별로 성향이 다르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  
 다. 이러한 작품 속의 색감들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정서와 심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면 하였다.

22) '파스텔컬러'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897&cid=40942&categoryId=33048>.



## V. 결론

본 논문은 집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삶의 시작부터 머무름의 안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집들이 과거와 현재 어떠한 형태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집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끌어 주는지 살펴보았다. 과거의 가옥의 집에는 사랑채라는 중심의 공간에서 모여서 서로 마주 보며 소통을 하였고, 지금의 집은 아이컨택을 하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미디어나 SNS, 인터넷을 통하여 각자의 공간에서 메너리즘화 된 소통이 되었다. 서로 만나지 않고도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 즉 1인 가구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나만의 삶이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의 정서적인 교류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공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전에는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집을 통해 개개인의 삶이 사람과의 유대 관계보단 소중하게 되어버렸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의 집은 우리의 삶에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계절은 우리의 생활에 상생(相生) 관계가 되는 중요한 바탕이고 철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순환 과정을 상징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며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소재들을 통해 안정과 심이 없는 현실에서 도피처를 동경하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언급되는 많은 이상향을 통하여 실제에 없는 상상 속 세계를 동양에서는 설화를 통하여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를 언급하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작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쉬와 안견에 관한 작가의 특징과 작품들의 예시들을 통해서 그들의 표현한 이상향에 대한 각각의 개성 있는 표현방법과 그것을 통한 작품의 종류와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미술사조의 다양한 작가들인 20세기 초현실주의의 화가들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그동안 보여줘 왔던 이상향과 또 다른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의 작품의 표현특성들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작업에 나타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동경하며 벗어나려는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집이 혼자만의 공간을 넘어

이상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원한다. 작품에서의 징검다리나 사다리의 역할은 서로의 꿈이 연결돼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작용을 하며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논문의 내용은 집이라는 소재와 계절이라는 배경적 소재 이 두 개의 개념을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이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서 이상이라는 공간을 표현하고 창출하여 그 의미를 찾는데 이 논문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앞에서 연구했던 내용 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상향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알랭 드 보통 지음 정영목 옮김, 「행복의 건축」, 청미래, 2018.
- 에드윈 헤스코트 지음 박근재 옮김, 「집을 철학하다」, 아날로그, 2015.
- 양용기 지음, 「철학이 있는 건축」, 평단, 2017.
- 서운영 지음,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담은 집」, 서해문집, 2012.
- 노버트 슈나우어 지음 김연홍 옮김, 「집 6,000 인류 주거의 역사」, 다우, 2004.
- 함성호 지음, 「당신을 위해 지은 집」, 마음의 숲, 2011.
- 마틸데 바디스티니 지음 조은정 옮김, 「상징과 비밀,그림으로 읽기」, 예경, 2014.
- 서신혜 지음,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2010.
- 월터 S지음 김숙 옮김, 「중세말의 환상 엮기 히에로니무스 보스」, 시공아트, 2010.
- 스티븐 파딩 책임편집 박미훈 옮김, 「위대한 화가 501」,마로니에북스, 2009.
-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 양용기 지음, 「철학이 있는 건축」, 평단, 2017.
- 한호철 지음, 「24절기 이야기」, 지식과 교양, 2016.
- 조정육 지음, 「한 폭 종이에 낙원을 불러온 안견」, 아이세움, 2011.
- 스에나가 타미오 지음 박필임 옮김 「색채 심리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 예경, 2011.
- 김선현, 「컬러가 내몸을 바꾼다」, 벅서스books, 2016.
- 캐롤 스트릭랜드 지음 김호경 옮김,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201.

## 〈논문〉

- 김예지, 「 집의 양면적 의미와 상징의 시각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이승혜, 「 두 개의 집 - 기억의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박지현, 「 ‘이상향의 풍경, 연작」,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주희, 「 동·서양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세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이승은, 「 추상적 형태를 통한 현대인의 감정과 색채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참고 도판 목록】

- (도판-1)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 쾌락의 동산>, 안쪽 면, 1500-1505
- (도판-2)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쾌락의 동산>, 바깥쪽 날개, 1500-1505
- (도판 3) 안견,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 두루마리 비단에 담채, 38.7 X 106.5cm, 1447, 일본 덴리대 소장
- (도판-6)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골공드>, 1953

(도판-6)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잘못된 거울>, 1935

(도판-7)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기억의 지속>, 1931

(도판-8)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코끼리를 반사하는 백조>, 1937

(도판-9)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도시 위에서>, 1887-1985

(도판-10)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의 마을>, 1911

## 【연구 작품 목록】

(연구 작품 1) View I~IV 23 x 18 cm pen on paper 2018

(연구 작품 2) stayII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3) stay I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4) simple store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5) Red house 33 x 24 cm crayon,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6) 낮과 같이 밝은 달 37.9 x 72.7 cm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7) 어디 어디 비추나 37.9 x 45.5 cm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8) 우리집에 비추지 37.9 x 45.5 cm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9) cozy island I~IV 연작 acrylic on canvas 201

(연구 작품 10) cozy island 162.2 x 97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1) cozy island 162.2 x 50 acrylic on canvas 2018

(연구 작품 12) cozy island 162.2 x 97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3) cozy island 162.2 x 97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4) 낙원-EI Dorado(2) 162.2 x 130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5) 감성스태이(1) 162.2 x 130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6) 감성스태이(2) 162.2 x 130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7) Hygge island 116.8 x 91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8) Fantaisie island 90 x 72 acrylic on canvas 2018
- (연구 작품 19)
- ① Mon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② Tues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③ Wednes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④ Thurs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⑤ Fri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⑥ Satur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⑦ Sunday island 25.5×19cm pen, watercolor on paper

## 【 표 목 록 】

- (표 1) 전 세계의 구석기시대의 집들의 차이점
- (표 2)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거의 여섯 단계
- (표 3) 이십사절기
- (표 4) 옛 선조들의 문집과 설화에서 나타난 이상향

## 【웹 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6897&cid=40942&categoryId=33048>